

전북은행
금연상담전화 | 1833-9030
 공·민·생·공
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(신동동 344-2) 한광대학교병원 지하1관 1층
 TEL: (063) 859-2400 ~ 2410 FAX: (063) 859-2414

전주매일

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
세인 신경외과 의원
 원장 박경문 ☎ (063)220-6600
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

2017년 6월 7일 수요일 (음 5월 13일) 제1821호

www.jjmaeil.com

대표전화 (063)288-9700

익산 오산 토종닭 농가서도 AI 발생

▶ 군산 서수 오골계 농장에 이어

H5 항원 검사결과 ‘양성’
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

앞선 긴급 대책회의서
 송 지사 “‘심각’ 단계
 준하는 방역대책 추진을”

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
 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생
 산자 단체 등과 함께 차단방역을 위한
 긴급 특별방역대책에 나섰다.

도는 지난 3일 군산시 서수면에서
 소재 오골계농장에서 AI가 발생됨에
 따라 4일 오전 11시 도청 재난종합상
 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김도
 순 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, 강태호
 전북농협 본부장, 김 산 기획위생방역
 지원본부 사무국장, 이계창 (썬동우 대
 표, 조덕곤 양계협회 김제시지부장 등
 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방역대책회의
 를 열고 ‘심각’ 단계에 준하는 강력한
 방역조치를 펼쳐나가기로 했다.

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“5월말로
 AI방역활동이 종료된 이후 재발할 만
 큼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 기
 관별로 맡은 역할에 집중하는 등 특별
 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”며 “공
 조체제를 확실하게 강화해 소독 등 차
 단 방역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”
 고 말했다.

또 “‘심각’ 단계로 격상될 경우 도



6·25 참전용사 가정 방문

송하진 도지사는 현충일인 6일 국립익실호국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을 가진 후 익실군 청용면의 이성근 6.25 참전용사 가정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. <관련기사 2면>

민은 물론 농가들까지 모두가 다 어려
 워지는 상황에 접하게 될 것”이라며
 “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·
 군간, 유관기관간, 생산자단체 등과 함
 께 연중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”고 당
 부했다.

전북도는 질병대비 매뉴얼에 따라
 재난재해대책본부 실무부서를 가동하
 기로 하는 한편 AI 살처분 인력 백신
 접종과 살처분 매몰지 관리 등 각 실

국별 임무를 부여, 방역활동을 강화하
 기로 했다.

도는 이와 함께 발병지역인 군산시
 를 비롯해 도내 전 시·군에 재래닭이
 유통되는 전통시장을 비롯 소규모 사
 육농가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철저히
 해 줄 것을 강력 지시했다.

한편, 5일에는 익산시 오산면 농가
 주택 토종닭(21마리 사육)에서 AI H5
 항원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.

신고농가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현지
 확인결과, 21마리 중 7마리가 폐사하
 고 간이 진단키트 검사 양성(양성 2마
 리/6마리)으로 판정, 실험실 검사
 (PCR)에서 H5항원이 검출됐다.

이에 긴급방역조치로 해당농가 예방
 적 살처분 및 기준 반경 10km내 가금
 사육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조치 및 입
 상예찰,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
 했다. /김진성 기자

社 告

제4회 전국 품바왕 명인전

일시: 2017년 6월 10일 (토) 오후 7시부터

장소: 전주 풍남문 광장

품바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풍자요 해학이
 있습니다. 이제는 하나의 전통예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, 이에 본사는
 올해 네번째 품바왕 명인전을 열고자 합니다.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

- ▲주최: 전북다문화진흥원
- ▲주관: 전북다문화진흥원, 전주매일신문사
- ▲후원: 전주시
- ▲문의: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(063-288-9700)

전주매일

“강경화·장녀 건강보험 혜택, 법적 문제 없어”

외교부, 일부 언론 보도 따라
 “국외 소득 있는 국민, 혹은
 재외국민이더라도 부양요건
 해당되면 건보 이용 가능”



이에 대해 이
 당국자는 “후보
 자 본인의 경우
 와 같이 해외에
 체류하고, 국외
 소득이 있는 국
 민의 경우 건강
 보험 자격 유지
 및 이용이 가능

외교부는 6일 강경화 장관 후보자
 (사친)와 장녀의 건강보험 혜택에
 법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.

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“관계부처
 에 확인해 본바, 후보자 본인과 장
 녀의 건강보험 관련 자격요건에 법
 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”며
 이같이 밝혔다.

앞서 일부 언론은 강 후보자와 장
 녀가 수년간 건강보험료를 제대로
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아, 관련
 규정을 어겼다고 보도했다. 강 후보
 자 본인의 경우 ‘연소득이 4,000만
 원을 넘거나 해외에 거주하면 피부
 양자가 될 수 없다’는 규정을, 장녀
 의 경우 2006년 국적을 상실해 자격
 이 없어졌음에도 이듬해 아버지의
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점에
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.

하다”며 “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되
 지 않는다”고 설명했다.

이 당국자는 또한 “장녀의 경우 외
 국 국적자 또는 재외국민이라고 하
 더라도 부양요건만 해당되면 건강보
 험 자격 유지 및 이용이 가능하다”
 며 “피부양자와의 관계(직계비속)
 및 소득 요건(소득 없는 자) 등 부
 양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로 등록하
 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”고 강조했다.

이 당국자는 아울러 “이같이 건강
 보험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었음에
 도 불구하고, 후보자의 배우자와 가
 족은 부당 건강보험 수령을 질타하
 는 언론문조에 대해 사과드린 바 있
 다”고 덧붙였다.

/뉴시스

문 대통령, 6개 부처 차관인사 단행

문재인 대통령은 6일 6개 부처에 대
 한 차관 인사와 함께 신실한 청와대
 경제보좌관 인사를 단행했다.

문 대통령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2
 차관에 김홍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
 위원을,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 한국국
 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, 보건복지부
 차관에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
 을,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
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, 국민안전처
 차관에 류희인 충북대 정책대학원 초
 빙교수를 각각 임명했다. 외교부 1차
 관에는 임성남 현 차관을 유임시켰다.

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정책실장
 산하로 부활한 경제보좌관에는 김현
 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했
 다. 경제보좌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
 간사위원도 겸임한다. /뉴시스

‘한국의 꽃심 전주’ 스토리북으로

시, 제작 배부... ‘대동’ 등 네가지 정신, 대표적 인물과 연계
 (大同)

전주시가 시민 생활 속엔 전주정신
 인 ‘한국의 꽃심, 전주’를 뿌리내리
 기 위해 스토리북을 제작해 배부
 로 했다.

시는 전주정신 선포 1주년을 맞아
 시민의 가슴속에 ‘꽃심’을 새기기
 위해 스토리북 ‘꽃심 전주’를 제작
 했다.

전주정신은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
 리며(대동) 삶의 여유와 멋을 잃지
 않고(풍류), 사람의 도리와 의로움을

추구하며(울골음), 창의적 미래를 열
 어가는 것(창신, 創新)을 토대로 한
 ‘한국의 꽃심’으로, 지난해 6월 전주
 시민의 날에 선포됐다.

이번 제작된 스토리북은 전주정신
 인 ‘꽃심’에 포함된 네 가지 정신
 (대동·풍류·울골음·창신)을 전주
 의 대표적인 인물과 문화자원 등과
 연계시켜 시민들이 친근하고 흥미
 롭게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.
 스토리북의 내용은 새로운 문화와

세상을 열어나가는 힘 ‘꽃심’, 대동·
 대동세상을 향한 전주의 꿈/화해와
 상생을 향한 전주의 마음, 풍류·맛
 과 멋의 땅, 풍류에 이르다/전주의
 흥, 일상의 축제, 울골음·꽃향고
 골개 지킨 전주의 자존/향일의 기운
 이 단단한 전주, 창신·전주, 새 왕
 조를 띄우다/술잔히 아고풍향 전주
 가 찾은 새것 등 4개의 소주제로
 엮었다.

특히, 시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읽
 을 수 있는 크기의 200페이지 분량
 책자 형태로 스토리북을 제작했으
 며, 스토리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
 해 전주시 홈페이지에 e-book 형태
 로 제공해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접할
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/인재용 기자



은행감독인 심의필: 제 2017-다-118호 (심의일자: 2017. 3. 31 현재)



전북은행 지역사랑 스토리 # 01

희망의 공부방

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
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이나 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으로
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성장하기를
 전북은행이 응원합니다